




안전, 인고의 세월이 걸리는 종합예술

H현대제철 현대제철 인천공장
서 덕 석 안전관리자

요란한 자명종 소리에 잠이 깼다. 창틈으로 새어든 햇빛이 오늘도 더운 하루를 예고하는 듯하다. 어느새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세상, 거리에는 가벼운 옷차림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갈 곳을 찾아 바빠 움직인다. 얼마 전 현장 촬영차 방문했던 현대제철 인천공장. 붉게 달아오른 쇠물, 불꽃을 일으키며 치솟는 화염, 거대한 크레인과 높다란 천장, 어디선가 들리는 요란한 굉음, 현장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이곳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서덕석 안전관리자를 만났다.

올해로 신 세살이 된 그는 덕적도 서포리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다. 이곳 현대제철에 입사한지 벌써 24년, 현장의 안전과 함께 반평생의 세월이 지났다. 입사 하던 80년대 초 현장에서는 매일 2~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연간 700여건에 달하는 사고에 그 중 중대재해는 10%에 달하는 그야말로 안전의 무풍세월이었다. 현장은 연일 수출물량과 산업화에 따른 수주물량을 생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직 목표량 달성에 매진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 안전이란 말은 사람들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 필사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하루에 2~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재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 했다. 무언가 체계화된 안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 하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 무재해 추진양성교육을 이수하였고, 위험예지 지적확인을 시작으로 안전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위험예지훈련 4R기법을 현장에 전파하면서 사고는 조금씩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은 부족했고, 사고는 어김 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안전의식의 향상과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교육과 작업안전표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고 다시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우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을 대상으로 각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방법을 제출하게하고 각 작업방법을 분석,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안전작업을 표준화하였다. 3년여에 걸쳐 완성된 안전작업표준서는 지금의 안전작업표준매뉴얼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많던 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간다고 말하여 활짝 웃는 그의 표정에서 정말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전의 시작은 인간존중입니다. 그리고 안전은 인고의 세월이 걸리는 종합예술, 그 속에 사람이 있고, 철학이 있고, 기업과 환경이 있습니다. 안전은 종합예술이죠.” 예술에 비유하며 그가 말하는 안전은 오랜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 인내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하나의 예술작품일 것이다. 그의 노력이 현대제철 인천공장의 무재해 달성에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 

(임재근 기자)